



그녀는 떠났지만... ‘아름다운 별’ 강수연 다시 만난다

7월 부천판타스틱영화제서 회고전 ‘씨받이’ ‘아제...’ 등 대표작 다수 소개

배우 강수연은 떠났지만, 한국영화계와 관객은 아직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며 그가 남긴 업적을 기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강수연 회고전’을 통해 가장 먼저 자리를 마련한다.

7월 7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고 강수연의

대표작인 ‘씨받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등을 소개하는 회고전을 연다.

17일 BIFAN 관계자는 “한국영화의 얼굴이자 생전 영화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고인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 강수연은 BIFAN과 남다른 인연을 맺었다. 고인은 1997년 제1회 축제에서 홍보대사 역할인 ‘피판(PiFan) 레이디’로 나서 영화제를 알리는 활동에 힘썼다. 1999년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한 고인은 이후에도 꾸준히 영화계에 참석하며 영화계 발전에 힘을 보탰다.

영화계 관계자는 “‘월드스타’로 불리며 해외 영화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었던 고인 덕분에 첫 회부터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와 관련해 고인이 세상을 떠난 8일 BIFAN은 공식 SNS에서 고인을 애도하며 “영화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연을 보내주셨다.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 강수연의 영면을 빈다”고 밝혔다.

고 강수연은 5일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소녀시대

“반갑다, 소녀시대”

8월 데뷔 15주년 기념 새 앨범 공식 발표
수영·티파니 등 8명 5년 만에 완전체 컴백

“지금도 소녀시대!”

케이팝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완전체로 돌아온다. 이들은 올해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새 앨범을 8월 발표한다. 2017년 8월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 이후 5년 만이다. 또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데뷔 이후 현재까지 활동을 뒤돌아볼 예정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소녀시대가 오랫동안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음반은 8명의 멤버가 모두 함께하는 완전체 앨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규 6집 이후 태연, 윤아, 유리, 효연, 씨니를 제외하고 수영, 티파니, 서현이 소속사를 떠났다. 이후 각 멤버들은 연기와 솔로 앨범 발표 등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드라마 및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며 개별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 만큼 이들이 오랜만에 완전체 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팬들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2007년 8월 싱글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소녀시대는 케이팝 대표 그룹으로 손꼽힌다. ‘소녀시대’, ‘지’(Ge e), ‘소원을 말해봐’(Genie), ‘라이언 하트’(Lion Heart) 등 히트곡을 잇따라 내놓았고, 멤버들은 유닛과 솔로 활동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6월1일 개봉 ‘카시오페아’ 주연 배우 서·현·진

“시나리오 보고 눈물...슬프지만 따뜻한 영화”

7년 만에 스크린 컴백...즐겁게 촬영
알츠하이머환자역...동영상보며 연구
캐릭터 몰입해 자다가 깨서 평평 울어
안성기와부녀호흡...진짜아버지같아

배우 서현진(37)이 주요 활동무대였던 안방극장을 떠나 6월 1일 개봉하는 영화 ‘카시오페아’(감독 신연식·제작 루스이소니도스)로 관객을 만난다. 2017년 ‘사랑하기 때문에’ 이후 7년 만의 스크린 컴백이다.

‘또 오해영’, ‘남만닥터 김사부’, ‘뷰티 인사이드’ 등 주연 드라마마다 성공시키며 안방극장 흥행 퀸으로 자리매김해 온 그는 오랜만의 스크린 나들이에서 ‘로코 여신’ 이미지까지 벗어던질 태세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기억을 잃어가는 변호사 역을 맡아 아버지 역 안성기와 절절한 부녀관계를 그리며 관객의 눈물샘을 겨냥한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첫 시사회에서 서현진은 2년 전 “눈물을 흘리며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너무 좋은 시나리오라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첫 리딩을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촬영이 정말 즐거운 여정 같았다”며 미소 지었다.

● “캐릭터에 몰입, 자다가 깨서 울기도...”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한 상황에 진행된 촬영은 쉽지 않았다. “직접 알츠하이머 환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배우 서현진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카시오페아’ 언론시사회 무대에 올라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김홍원 기자 won@donga.com

그럴 수 없었다. 대신 “환우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연기를 준비했다.

“자세나 표정 등을 많이 참고하려 했어요. 극중 캐릭터처럼 젊은 나이에 알

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해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영상을 가장 많이 봤어요. 알츠하이머로 인해 겪었던 직업적 어려움 같은 애길 들으며 캐릭터에 공감하려 했어요.”

유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작품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촬영 내내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잠을 자다가도 깨서 울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세상을 떠난 절친한 지인이 떠올라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옆에서 봤던 모습을 연기하며 대입해 보기도 했죠. 연기를 하는 내내 먼저 떠난 그 분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 “슬픈 영화 아닌 따뜻한 영화이기를”

안성기와 호흡은 때 순간 놀라웠다. 깊이 고민하던 장면도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그와 마주 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말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안성기 선배님 앞에 서니 제가 한 번도 내보지 못한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선배가 아니라 정말 제 아버지로 보였죠.”

덕분에 촬영을 하면서 “아빠와 딸,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굳혔다.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다.

“가장 많이 싸우면서도 서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족인 것 같아요. 영화는 그런 가족의 유대를 말합니다. 마냥 슬프기보다 따뜻한 영화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3

채널A 히트예능 ‘도시어부’ 7월 시즌4 공개

채널A의 히트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도시어부)가 7월 시즌4를 내놓는다. 17일 채널A는 “시즌1부터 호흡을 맞춰온 배우 이덕화, 방송인 이경규가 네 번째 시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월 시즌3 종영 후 6개월 만의 방송 재개다. ‘도시어부’ 시리즈는 2017년 첫 방송 후 생생한 낚시 장면과 출연진의 찰진 호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재치 있는 편집과 자막이 재미 포인트로도 꼽힌다. 제작진은 추후 다른 고정 출연자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알렉사, LA 다저스타디움서 ‘미국국가’ 불러



알렉사

최근 미국 경연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알렉사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다시 초청 받았다. 소속사 지비 레이블에 따르면 알렉사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 전 미국 국가 가창자로 나섰다. 이날 알렉사는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단상에 올라 미국 국가를 불렀다. 10일 미국 NBC 경연프로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는 LA 다저스 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무대에 섰다. 지난해 9월에도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미국 국가를 가창한 바 있다.

그룹 세븐틴 2년4개월 만에 월드투어 재개

그룹 세븐틴이 2년 4개월 만에 월드투어를 연다. 수용인원이 2만 명에 달하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여는 서울 공연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당 관객수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6월 25·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시작으로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 등 세계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세 번째 월드투어 ‘비 더 선’(BE THE SU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아시아 아레나 투어와 11~12월 일본 돔 투어를 연이어 진행한다.

종착역으로 향하는 코로나...방송계 “슬슬 해외촬영 나가볼까?”

MBC ‘도포자락 휘날리며’ 곧 덴마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촬영재개 채비
유럽·베트남·말레이 등 비격리국 물색

감염병 사태로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해외 풍경이 조만간 안방극장에 다시 펼쳐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해온 해외 각 나라들이 이를 대폭 완화하면서 몇몇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현지 촬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tvN 예능프로그램 ‘뜻밖의 여정’과 6월 3일 첫 방송하는 JTBC ‘플라이 투 더 댄스’는 이미 3월과 4월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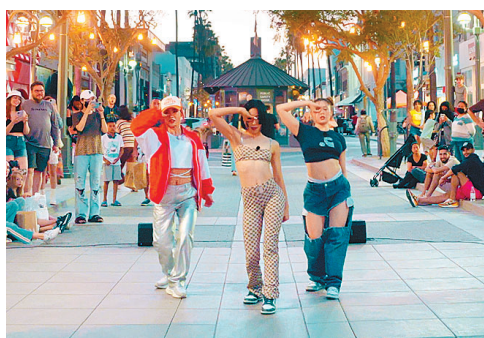
국에서 각각 촬영을 마쳤다. ‘뜻밖의 여정’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의 여행길을 담았고, ‘플라이 투 더 댄스’는 리아킴·아이키 등 댄서들이 뉴욕 등에서 댄스 버스킹을 펼치는 내용이다. 각 제작진은 원활한 입출국 및 현지 이동을 위해 소수 인원만으로 촬영했다.

뒤이어 가수 김종국과 연기자 지현우 등이 출연하는 MBC 새 예능프로그램 ‘도포자락 휘날리며’(가제) 제작진도 이달 중 덴마크로 떠나 열흘가량 촬영한다. EBS ‘세계테마기행’, KBS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은 해외 촬영을 곧 재개한다. 또 다른 방송사도 해외를 배경 삼는 예능프로그램

을 기획 중이다. 유럽 국가를 비롯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한 지역을 촬영 장소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등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기준이 달라 촬영 가능한 나라가 이전보다는 제한적이다. 또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걸림돌이다. 최근 해외 촬영을 제안받은 한 연예인 측은 “아직 여행 방송까지는 시기가 이른 것 같아 고민”이라며 “자칫 해외에서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워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tvN ‘뜻밖의 여정’, JTBC ‘플라이 투 더 댄스’(위부터) 등 최근 해외에서 촬영을 마친 예능프로그램들이 줄지어 시청자를 찾는다. 사진제공 | tvN·JTBC